

의현 스님 재심 판결논란 대중공사서 해법 찾자

자승 스님 등 23일 기자간담회서 입장 발표

前 총무원장 의현 스님의 재심 판결 논란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조계종이 논란이 최종 종식될 때까지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교육원장 현승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과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스님들은 7월 23일 교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재심 판결 논란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재심 판결에 대한 공식적 책임이나 유감 표명은 없었다.

자승 스님 등은 입장문에서 “개혁 이후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중앙종무기관은 현 종단의 기틀인 1994년 종단개혁불사의 정신을 엄정 수호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종단 개혁불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승 스님은 오는 7월 29일 불광사에서 열리는 5차 100인 대중공사와 중앙총회에서 논란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자승 스님은 “중앙종무기관도 중도들과 함께 이 문제가 여법하면서도 엄정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총무원은 이번 재심판결과 관련된 논란이 최종적으로 종식될 때까지 의현 스님의 재심 판결에 대한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7월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의현 스님 재심 논란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공식적 유감 표명은 없어
 “후속행정 조치 안한다”

불교신문, 사설 관련 사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교신문〉 사설 문제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사과가 이뤄졌다. 불교신문 사장 주경 스님은 “〈불교신문〉은 종단 기관지로서 1994년 종단개혁불사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하지만 최근 사설로 기존의 뜻과는 다르게 중도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을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대중공사, 논란 해소 가능할까

이 같은 입장은 그간 종단 안팎의 문제제기와 우려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29일 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 결정을 통해 본

종단개혁’을 긴급 의제로 상정해 열리는 제5차 대중공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중공사에서 도출되는 결과에 따라 해결의 분수령이 되거나 사태가 악화 일로를 걸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퇴후)는 7월 2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100인 대중공사가 1994년 종단개혁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장이 되길 기원한다”면서 “1994년 종단개혁 정신을 어떤 방식으로 계승할 것인지를 총체적으로 다루길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대중공사는 공의를 모아 재심 논란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기존 100인 대중공사 위원 외에 1994년 종단 개혁 참여 승·재가를 비롯해 비상대책회의, 중앙총회의원 등을 위원으로 초청해 참여의 폭을 확대했다.

5차 대중공사에서는 박재현 화쟁 아카데미 사무국장이 '94년 종단개혁과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 결정'을 주제로, 전 결사추진본부 총괄부장 가섭스님이 '94년 종단개혁 정신과 종단의 미래'를 주제로 브리핑이 진행됐다.

브리핑 이후에는 성태용 건국대 교수의 사회로 전체 토론과 모듬토론, 종합토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lp79@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사진 왼쪽 두 번째)과 나선화 문화재단장(사진 왼쪽 첫 번째)이 7월 21일 환수식에서 공개된 선암사 '동악당재인선사진영'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진영환수는 조계종과 문화재단이 지난해 국내 도난불교문화재 환수 성과를 바탕으로 맺은 공조협약의 첫 성과다.

도난 '선사 진영' 본래 자리로

조계종·문화재단, 21일 선암사 '재인선사 진영' 환수식

불법 반출 뒤 미국 경매에 출품된 '동악당재인선사진영(東岳堂在仁大禪師眞影)'을 기증형태로 받아들인 것이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과 문화재단(정장 나선화)은 7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동악당재인선사진영(東岳堂在仁大禪師眞影)' 환수 공개식 및 정

보공유 협약을 개최했다. '동악당재인선사진영'은 1990년대 도난당한 것이다. 도난 전 진영의 화기(畫記, 불화 기록)로 제작연대(1738년)를 알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진영으로 평가돼 왔다.

이번 진영 환수에서 조계종과 문화재단, 국외소재문화재단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먼저 문화재단은 지난 3월 국외소재문화재단을 통해 미국인 A씨가 경매에 이 성보를 출품한 사실을 파악했고, 조계종의 불교문화재 도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불법 반출된 문화재임을 확인했다.

문화재단은 경매장에 도난 문화재임을 통보하고 즉각 경매 중지를 요청했다. 이후 문화재단과 조계종은 이 진영을 소유하고 있던 미국인

A씨와 2개월간 협상 끝에 기증 형태로 돌려받는 데 성공했다.

조계종 문화부장 해일 스님은 “불법 반출된 문화재임을 설명하고, 돈을 지불하거나 압력을 넣지 않고 불화를 환수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식 이후 두 기관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 소재 불교문화재의 정보공유와 환수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차도 체결했다.

자승 스님은 “오늘을 계기로 문화재청과의 협력관계가 보다 긴밀해지고 국외에 흩어져 있는 많은 불교문화재가 조속히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노덕현 기자

불교통일선언, 내실화 필요하다

민추본, 22일 '선언 의미와 과제' 토론회 열어

'합심'으로 통일 이뤄낼
 구체적 실천 방안 필요
 北 종교성향 파악 시급

“이제는 공존과 상생, 합심의 불교통일담론에 입각한 구체적 실천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지난 5월 16일 발표된 '2015 불교통일선언' 핵심 키워드 '마음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불교계의 실천적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선언에 그치지 않고 불교계 후속 과제를 마련해 민족통일에 기여하자는 취지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 이하 민추본)는 7월 22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15 불교통일선언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를 주최했다. '한국 전통불교문화와 마음의 통일'을 발제한 유승무 교수는 “합리(合理)가 아닌 합심(合心)으로 진정한 마음의 통일을 이뤄야 한다”며 실천법 2가지를 제시했다. 유 교수는 “통일 후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면 북한 주민들의 '의지'가 사라진다. 이때 종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인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통일 후 불교가 북

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지 실질적인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유 교수는 “북한 주민의 종교적 성향·의식·태도 등 조사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탈북자 대상 1차 조사 뿐 아니라 북한 거주민들 대상 연구도 실시해 정확한 연구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유환 교수는 “정부의 중앙집권적 대북정책은 반성해야 할 문제”라며 “5·24 조치 등 사건 발

생 시마다 남북교류를 전면 중단하는 방법이 안타깝다.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차원 인도적 교류는 유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고 교수는 불교계 차원 독자적 대북지원 방안으로 △불교계 통일기금 조성 △불교문화유적 공동 발굴과 보존사업 △평양 불교문화원 건립과 의료원 및 한의대 설치 등을 제안했다.

박익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주요 발제 정리 31면)

공채 1기 기자, 불교방송 신임 사장 당선

7월 22일 이사회서 선상진 씨 선출

불교방송 신임 사장에 선상진 대구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사진)가 선출됐다. 불교방송은 7월 22일 오후 2시 마포가든 호텔에서 92차 정기 이사회를 갖고 선상진 교수를 차기 불교방송 사장으로 선정했다.

이날 이사회는 선상진·하동근 2명 최종 후보의 브리핑 후 참석 이사들의 투표를 통해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1명의 이사 전원 이 참석한 가운데 13대 8로 선상

진 후보의 선출이 확정됐다.

선상진 당선자는 “불교방송 공채 출신이 개국 25년만에 처음 사장이 됐다. 기쁜 마음이지만 한편으로는 불교방송이 광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부담감도 크다”면서 “세계 유일의 공공파 불교방송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개국 정신을 이어가겠다. 또한 전직원들의 마음을 모아 불교방송의 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취을 제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 당선자는 1960년생이며 법명을 해원(海圓)이다. 고려대 영어영문학부를 졸업했다. 1989년 불교방송공채 1기로 입사해 기자를 거쳐 보도국장을 역임했다. 정혜숙 기자

자연 통한 성찰,
 시와 사진으로 그려낸
 우현스님의 단행본 『기별』 출간

그대의 눈길은
 어느 곳을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그것을 진실이라 말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는 않는 것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행복한 구도의 길

불성을 깨워주고 구름 같은 허영된 우리의 마음을 비워주는 것은 푸른 산이요, 행복한 구도자의 길을 열어주는 것 역시 무심히 변화하고 있는 자연이다. 여기 깊고 넓은 법계에서 공존하고 있는 자연과 부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마음으로 담아낸 시선집이 있다. 관룡사 주지 우현스님이 마음으로 담아낸 '찰나'의 기록이다.

불법의 길에서 자연과 함께 초연히 걷고 있는 스님의 일상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덧 따뜻한 성정의 '부처'를 만나게 된다.

스님이 안내하는 구도의 길, 누구나의 가슴에 선물로 다가오는 한 소식 '기별'이다.

울림 있는 스님의 일상 속 글귀와 사진은 불제자들의 마음을 두드린다. 스님은 계절의 변화 속에서 밤부에서 벗어나 부처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스님이 안내하는 구도의 길에서 '행복'으로 자신의 마음에 기별을 넣어 보는 것은 어렵가.

20082014 © writings, photograph BY 우현 | 글 우현스님 | 192쪽 | 12,000원

puremind-ms@hanmail.net 051-255-0263 맑은소리맑은나라